

2020 년 3 월 1 일 “(성경의 큰 숲 보기 27) 다니엘: 제국 속에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단 7:13-22)

1 차 포로 때(BC 605) 끌려가 1 차 귀환 때(BC 536)까지 바벨론에서 살았던 다니엘은 제국들 사이에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새 일에 관한 것입니다.

[1] 다니엘서의 흐름

두 단락:

- (1) **1-6 장** -> 역사적 사건의 이야기들(왕을 중심으로)
 각 장마다 도입-갈등(위기)-해결-하나님 찬양(5 장은 예외 - 벨사살 죽음)으로 끝남.
- (2) **7-12 장** -> 묵시적 환상의 형식(여러 상징적 환상들)

묵시 - ‘아포칼립시스’ 뚜껑을 연다는 뜻.

묵시록(계시록) - 고난과 불의의 현실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서 악이 물러가고 새 세상이 열린다는 주제를 가진 문학 장르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흥했습니다.

[2]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데 능했습니다. 예: 2 장 - 느부갓네살의 꿈.

왕이 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신상의 머리는 순금, 가슴/두 팔은 은, 배/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었는데 손대지 않은 돌이 날라와 발을 치니 산산이 부서져 날라갔고, 신상을 친 작은 돌은 후에 태산을 이루어서 세상에 가득하였다고 말합니다.

각종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부분들은 역사의 제국들을 의미하며 순금 머리는 왕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나머지는 바사/메대, 그리스 (헬라), 로마제국...). 돌은 손으로 깎지 않은 것인데 초월적 성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산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태산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해질 것을 뜻합니다. 이 해석을 들은 왕은 다니엘을 높여줍니다(2:46-49).

이것은 다니엘의 탁월한 해몽 능력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민감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다니엘의 영성입니다. 그의 영성은 하나님께 깨어 있어 그분 알기를 추구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성품과 행하신 일의 의미를 깊이 알기를 갈망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자신을 포함한 인간에 대한 정직한 발견과 이해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9 장을 보겠습니다.

9:2-3 -> 그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묵상했고,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회개)

그는 ‘우리’의 죄와 잘못, 반역을 고백합니다(5 절이하). 다니엘이 10 대에 포로로 끌려온 것을 생각하면 나라의 멸망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마치 자기 잘못인 것처럼 조상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상을 원망하지 않고 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고는 믿었지만 듣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사람의 치명적 오류가 죄임을 처절하게 발견했습니다.

이런 회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고결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 깨어나 그분을 아는 일과 인간의 죄의 처절함을 아는 두 가지 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새 일입니다.

[3]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영원한 나라

파스칼의 팡세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교만해질 수 있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절망에 빠질 수 있다. 오직 JX 를 통해서만 자신의 비참함과 하나님을 동시에 아는 균형을 갖게 된다.'

역사 속에는 언제나 복합적이고 얽히고 설킨 갈등과 난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빠져들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암담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돌파구를 찾기를 원하실까요? 세상은 막 나가도 다니엘의 신앙과 성품을 배워 사람의 죄성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내팽개쳐진 것 같은 처참함으로부터 비로소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힘을 더 잃습니다. 그러나 주님 음성을 거둬 듣고 일어납니다.

10:9-11

10:18-19

하나님께서서는 바벨론 이후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을 주관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역사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당신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었습니다.

7:13-14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고 영원할 것이다' 그것은 인자 같은 이(사람 -> 이스라엘 -> 메시아)가 옛적부터 계신 이(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니엘의 신앙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알고, 자신과 사람의 처절함을 볼 때 시작됩니다. 그 때 거둬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여라', 이 말씀이 새겨질 때 나를 어루만지시고 강하게 하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성도님들에게 부요해져서 영원하고 고결한 나라의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아래의 질문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질문과 함께 토의하실 수 있습니다.)

1. 나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무엇을 중요시하고 있습니까? 나와 다니엘의 신앙에 비추어 생각해 봅시다.
2. 나의 신앙은 무엇을 목표로 합니까? 자유롭게 표현해 보십시오.